

## ■ 광주시청 로비 인기끄는 초봇 다휴이

# 안내·손님맞이 '길잡이' 척척

광주시청 로비에서 길 안내를 하는 로봇 '다흰'이가 청사를 찾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하고 있다.

'다흰'이는 KT가 주관하고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URC(Ubiquitous Robot Companion)로봇 시범서비스 기관에 광주시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첫 선을 보였다.

22일 오전 11시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흰'이가 이모를 따라 시청에 온 민주(여·5·광주시 남구 진월동)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함께 온 동생 채연(여·3)이는 놀란 듯 "왕~"하고 음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다흰'이의 애교 섞인 눈빛을 보자 이내 '꺄르르' 웃는다. 로봇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nn'(웃는다는 뜻의 이모티콘)과 '♥♥'(좋아한다는 뜻) 모양의 표정을 짓는다.

주변 아이들도 신기한 듯 로봇 주위를 에워섰다. 한 아이가 로봇 앞을 가로막자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라며 몸을 돌린다. "로보트야~ 로보트야~" 아이들이 애태개 불러보지만,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만히 다가가 악수를 청하자 몸을 돌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반갑게 인사한다.

"어? 다리가 없네? 다리가 없는 데 어떻게 움직여?" "다흰이는 여기에서 살아?" "혼자 돌아다니면 심심하지 않아?" 아이들이 물어보면



광주시청 안내 로봇 '다흰'이가 어린이들과 함께 동요를 신나게 합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견학온 아이들 금새 친해져 시간가는 줄 몰라

## FTA집회때 큰 일 날뻔... 내달까지 임무수행

이 재잘댔다.

'다흰'이는 키 1m50cm에 몸무게는 115kg에 달한다. 다리 역할은 2개의 바퀴가 대신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지만 곳곳에 장착된 초음파·적외선 센서가 주변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됐다.

'다흰'이란 이름은 로봇을 만든

㈜다사테크 가족들이 고심 끝에 지어졌다.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흰 눈꽃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미래 첨단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흰'의 움직임을 통해 눈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바람을 담았다.

'다흰'이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

후 5시30분까지 시청 로비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한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견학온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버린다.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 한미 FTA반대 시위가 열렸던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낙입할 때 '다흰'이는 하둥지동 보안실로 피해야 했다.

'다흰'이는 다음달까지 시청 로비에서 안내를 한 뒤 친정인 ㈜다사테크로 돌아간다.

/김예울기자 wool@kwangju.co.kr

## 황사 걱정잇고 주말 나들이 갈까

### 광주·전남 원연한 봄 날씨

광주·전남 지방은 주말인 24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날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최고 13도로 원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휴일인 25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휴전 뒤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도 높고, 낮 기온은 14도로 포근해 교외로 나들이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의 마지막 주에도 평년(아침 최저 영하 5도~영상 1도, 낮 최고 7도~10도)보다 약 2~3도 높을 것으로 보여, 날씨는 단분간 따뜻할 전망이다.

한편 고비 사막과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23일 전국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이날 새벽 한 때 광주와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1~2시간 동안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발달한 대륙 고기압의 중심축이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빠졌고, 예상과는 달리 북서풍 대신 북풍이 불어 황사가 한반도를 비켜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최근 황사 발생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3~5도 높고, 조건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봄철 황사발생 일수는 평년(전국 평균 3.6일)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노래방 강도 안잡나 못잡나

### 광주 북구 한달 반새 6건 발생 경찰 속수무책

광주시 북구 노래방에서 최근 한 달반에서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노래방 강도사건이 6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으나,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16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A 노래방에 20대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들어와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흉기로 위협, 현금 5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12일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D노래방에서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노래방 업주(48)를 흉기로 위협, 비명소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6곳이 잇따라 털렸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미뤄 동일범일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전담팀을 구성,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용의자가 범행 시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현장에 흘린 모자와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와 통신내용 조회, 최근 출소자를 조사하는 등 용의자 범위를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드라마 '주봉' 주인공

### 송일국·한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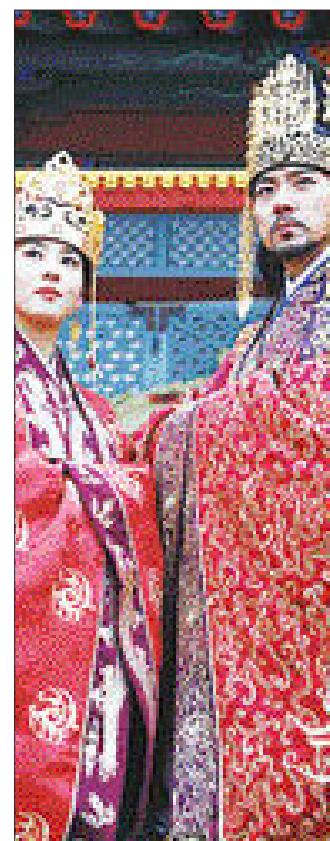
### 나주 명예시민

MBC 월·화 인기 드라마 '주봉'의 주인공 송일국과 한혜진이 나주 명예시민으로 위촉된다.

나주시는 23일 "주봉 드라마의 시청률이 50%를 넘나들면서 나주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역사와 문화, 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에 이바지 했다"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송일국과 한혜진, 그리고 이주환 연출자에게 명예시민 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예시민패는 오는 28일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3월 중에 수여될 예정이며, 나주를 상징하는 금동관 모형의 기념품도 함께 전달된다.

한편 나주시는 주봉의 홍보효과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출장비 50억원대의 광고 효과를 거



인기 드라마 '주봉'에서 열연하고 있는 송일국과 한혜진.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교복업체 3곳에 "발전기금 내라"

## 학사모, 수십억 요구 파문

교복값 인하 운동을 해 온 학부모 단체가 교복업체에게 발전기금을 낼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교복업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따르면 학사는 작년 5월~11월 대학교복업체 3곳에 2건의 공문을 보내거나 업체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원의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학사모가 보낸 한 공문에는 "사회 환원금과 장학금 관련 글액까지 확실한 입장장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문에는 발전기금에 대해 "사회로의 부당 이익금 환수를 하기 위함과 귀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기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문에 명확히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업체들은 학사모가 전화통화에서 5억원~20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주장했다.

A교복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20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적어도 5억원 이상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학사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들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사모측은 "발전기금을 낼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학사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단체의 하미연 대변인은 "교복업체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었다"며 "대기업이 사회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협정을 학사모와 맺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라는 의도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내일침



## همپ에 음란물 마광수씨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수장 김경사)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광수(56)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를 압송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 교수는 2005년 5월에 '광마 클럽'이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1995년 대법원에서 음란물로 확정 판결받은 소설 '즐거운 사라'를 포함해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시와 콩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10여 건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 교수의 대표소설인 '즐거운 사라'에 대해서는 10년 전과 달리 음란성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음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산불 잇따라

23일 낮 12시44분께 영암군 신복면의 한 아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임야 0.2㏊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헬기 2대, 소방차 5대가 동원됐고 90여명이 소방대원과 군청 직원이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해남군 계곡면의 아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를 태우고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성묘객이 종이를 태우다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김한님기자 hnkim@

## 장나라 술집서 노래하라" 협박받아

○·최근 5집 앨범을 낸 '한류스타' 장나라(사진)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협박을 받은 죄로 있다. 장나라의 아버지이자 연극배우인 주호성씨가 폭로,

○·장나라의 진화작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젠가 딸에게 술집에서 노래 불러달라고 거세게 요구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경찰청장실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토로.

○·그는 이어 "불안한 일이 있는 데 비밀리에 조사와 보호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비밀리에 사건을 접수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기자에게 노출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

/연합뉴스

## 도심 오피스텔 2인조 괴한 현금 등 1억5천만원 털어

도심 오피스텔에서 거액의 절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오피스텔 8층 건설컨설팅팀을 하는 박모(46)씨 사무실에 3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침입, 금고에 있던 현금 4천800만원과 이음 등 모두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박씨는 경찰에 "평소 사무실에 현금이 많지 않지만 최근 용역비를 받아 금고 안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에 따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모자를 쓴 용의자들이 찍힌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화면을 분석,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범인들은 현금과 함께 어음을 사전에 일일히 복사해 둔 덕분에 신속히 지급 중지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45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회

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의 환수 조치를 내렸다.